

# 개혁 운동에 나타난 자신학화의 역할 관찰: Anabaptism 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장창수 선교사(WEC 국제선교동원 R&D)

## 들어가며

‘경계선’은 사람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 앞서고 따르는 두 시대가 겹친 시대적 경계선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며 다가오고. 서로 다른 문화가 겹친 문화적 경계선은 어떤 문화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며 다가온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로 부터 섬긴 강 저쪽 신들을 섬기지 지금 사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지 택하라 요구하며 하지만 나와 내집의 선택은 변함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다. (수24:15)

우리는 ‘Post’라는 접두사를 통해 이러한 겹쳐진 시대를 묘사한다. 포스트 모던, 포스트 크리스천덤, 포스트 코비드 등 다양한 겹쳐진 시대가 다시 서로 겹쳐지는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단지 대개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해 그때 그때 선택을 정해 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변함 없는 선택에 따르는 삶을 감당하고 감내하며 살아간다.

‘경계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Liminality는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문턱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Limen’에서 비롯된 말로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주체가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가득한 과정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지금의 세상이 아닌 문턱 너머의 세상을 향하는 사람은 중심에 늘 ‘Not Enough’ 즉 ‘우리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품고, 문턱 안 원래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심에 ‘Not Yet’ 즉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을 향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다. 아예 무관심한 이들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대와 우려이다. 기대하는 이들은 비록 아직 함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가 넘어서길 바라고 나도 언젠고 따라 가길 소망한다. 그들도 중심에 ‘Not Enough’를 늘 품고 있다. 우려하는 이들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실패하기 바라고 필요하면 방해 라도 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중심에 ‘Not Yet’를 품고 살기 때문이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이들에게 기대의 대상이었지만 살아온 시대를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결국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를 가로막은 유대인들로 인해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주의 택한 그릇으로 오래도록 구원을 기다려온 이방인들에게 희망이었지만 반대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초대 교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한 분의 구원자를 바라던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제국의 안정을 바라며 여러 신을 섬기는 로마에는 불편하고 불온한 소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오직 성경을 외치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한 개혁자들은 제도화된 기독교에 배척 당하고 짓눌린 이들에게는 빛이었지만 하늘과 땅을 모두 통치할 듯 커진 카톨릭에게는 치명적이 위협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자들에게 조차 향해 ‘Not Enough’를 외치며 등장한 소위 재세례파는 개혁에 대한 질문과 개혁 이후 더 심화된 신자들의 타락에 대한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지만 개혁에 맞서는 카톨릭에게도 개혁의 주체 임에도 이들의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개혁자들에게도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혼돈의 주범이 되었다.

특히 개혁 주체로 카톨릭 교회에 맞서 처절한 저항을 펼쳐 왔지만 정작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종교 개혁자들의 재세례파를 향한 평가와 반응은 정말 격렬했다.

“동시대 개혁자 리더 중의 한 명인 라인리히 불링거는 이들을 ‘악마와 같은 적들 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파괴자’라고 했고, 루터는 창의적으로 ‘슈베르머 (Schwaermer)’ 즉 벌집 주위를 왕왕 소리내며 몰려드는 벌이나 나방 떼와 같다고 했고, 칼빈은 더 과격하게 ‘광신자(fanatics) 혹은 미친 개들 (mad dogs)’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눈에 아나뱃티스트들은 기존 교회를 파괴하는 악마 수준의 과격주의자, 급진주의자였다.”<sup>1</sup>

---

<sup>1</sup> 박준형, ‘아나뱃티스트 영성: 그 급진성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KAC 창립20주년 기념 문집 (2021)

## 1. The Radicals (급진주의자)와 아나뱃티스트

우리는 래디컬 (Radical) 이란 말을 제법 자주 마주한다. 급진적이라는 우리말 표현은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 래디컬이라는 영어 표현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혁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데이비드 플렛의 ‘Radical’은 교회 사역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고 존 스토틀의 마지막 저술인 ‘제자도’의 원제는 ‘The Radical Disciple’로 그대로 번역하면 ‘급진적 제자도’이다. 실제 Radical은 라틴어 Radix에서 유래했는데 Radix는 ‘뿌리’라는 뜻이다.

래디컬은 단순히 태도의 급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무엇으로 인한 급진성 인가를 포함한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라는 것은 원래 뿌리 즉 ‘근본과 본질’로 속히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이들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플렛도 존 스토틀도 자신들의 급진성을 나타내려 했다가 보다 근본에서 멀어져 가는 교회와 시대를 도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세례파의 급진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을 향한 역사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또 다른 평가를 여기서 더하기 보다 16세기 한창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에 불던 때 나타나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며 재차 개혁을 외친 ‘개혁자의 개혁자’로 불려진 재세례파를 관찰함으로써 개혁운동 속에서 자신학화의 역할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에 자신학화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개혁 운동의 3가지 동력과 자신학화

21세기 재세례파 즉 아나뱃티스트<sup>2</sup>의 재발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스투어트 머레이 (Stuart Murray)<sup>3</sup>는 중세 교회 시대 (Christendom Era) 저항 또는 개혁 운동이라 불린 활동들이 어떤 흐름과 단계를 거쳤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sup>2</sup> 중세 당시 개혁자들을 포함한 이들이 비하의 뜻을 담아 불렀던 이름이 ‘재세례파’보다 오늘날 재세례파의 후손들은 ‘아나뱃티스트’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sup>3</sup> 영국 아나뱃티스 네트워크의 대표로 ‘Urban Mission’ 단체를 설립해 북미에도 운동을 확산 중에 있고 Spurgeon College와 Bristol Baptist College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대표적인 저술로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The Naked Anabaptist)가 있다.

먼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해석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 된다. 그리고 더 깊이 읽어가며 문제의 원인이 특정 이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Christendom 자체에 있다고 보기 시작한다. Christendom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성경해석이 현 체제와 체제를 위해 변질 되었다고 생각하며 기존 교회와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하고 결국 그들의 해석과 해석에 기반한 가르침이 기존의 체제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침내 저항운동과 성경해석은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켜 해석은 저항 활동을 낳고 그 활동은 또 다른 해석과 발견으로 인도한다.<sup>4</sup> 그리고 이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세력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어 극심한 반대와 핍박으로 소멸 하기도 하고 헌신자들을 통해 생명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과 방식은 교회사에 등장 하는 대부분의 개혁 저항 운동 가운데 대부분 발견된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위한 개혁 저항 운동이 아닌 기독교적 개혁 저항 운동에는 이를 시작하게 하고 성장해서 확산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동력이 존재하는 발견되는 세 가지 동력은 성경, 타자, 그리고 환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독교의 최종 권위이다. 하지만 중세 교회를 거치며 교회라는 제도, 성직자라는 직분 등 종교적 인간적 권위가 성경의 최종 권위를 필요와 전통에 따라 축소하고 왜곡 했다. 개혁과 저항은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존의 지배적 성경 해석과 신학 체계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개혁 저항 운동의 두번째 동력인 타자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역할이 존재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고 원인을 제공한 타자는 배타적 타자로 전반적으로 그 체제가 부정 당하고 개혁의 기초가 되고 양분을 제공한 타자는 수용적 타자로 그 체제가 다양한 영향과 흔적을 곳곳에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 동력인 ‘환경’은 시대와 지역적 상황들이 개혁과 저항 운동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불의와 부정, 가난과 차별, 박해와 핍박 등 상황적인 요인들을 의미한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로 대변되는 ‘종교 개혁’은 오직 성경을 기치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누구나 평등 만인 제사장 주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재발견하고 콘스탄틴 황제의 공인 이후 국가종교 (State Religion) 형태로 타자로서 카톨릭의 거둬온 비성경적인 관례와 전통에 대한 저항과

---

<sup>4</sup> Stuart Murray, Christendom and Post-Christendom

부정 그리고 인쇄술 개발, 면죄부 판매, 농민 탄압 등 다양한 환경적 상황이 종교 개혁의 동력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나뱃티스트 (재세레파)의 개혁운동은 어떠한가? 그들도 개혁자 들과 같이 ‘오직 성경’을 중심에 두었다. 단지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을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 그들에게 카톨릭은 배타적 타자로 대부분의 기존 종교체제를 그들은 부정했다. 개혁자들도 그들에게는 배타적 타자가 되었다. 여전히 그들에게 개혁자들의 결과는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 (Magisterial Reformation)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수용적 타자로서 종교개혁의 영향도 남아 있었다.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시작은 1525년 으로 쾰빙글리 가 활동한 스위스 취리히 에서 일어난 미사와 유아세례 논쟁에서 비롯되었고 폭력사용으로 얼룩진 농민 저항 운동으로 시작된 독일의 ‘뮌스터 전쟁’도 지역의 상황과 환경이 주요한 동기를 제공했다.

개혁저항운동의 3가지 동력은 공교롭게 ‘자신학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최우선 가치와 권위로 삼고 카톨릭 이라는 당시 부패한 타자와 마주하며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신칭의, 만인제사장주의 등의 신학과 교리를 재정립 하게 되었다. 아나뱃티스트 들은 성경에 최우선 가치와 권위를 둔 것은 동일 했지만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중심에 두어 상대적으로 신약 성경의 비중이 컸고 그들의 입장에서 콘스탄틴 주의로 세워진 국가종교 카톨릭 도 관료 후원적 종교 개혁으로 불완전한 개혁에 안주한 개혁자들도 모두가 배타적 타자였고 놓인 환경에서 예수처럼 살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자도, 비폭력 평화주의, 만인평등, 공동체적 성경 해석등 나름의 독특한 신학과 교리들을 세워가게 되었고 대부분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한 예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의 직접 이유가 되었던 ‘유아세례’는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칼빈은 ‘재세레파 반박’ 에서 ‘유아세례’를 단순히 구교의 부정적 잔재로 보지 않고 ‘언약신학’ 차원에서 구약의 ‘할례’와 연관 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는 세례로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해를 밝힌 반면 아나뱃티스트 들은 유아세례를 국가종교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온 비성경적 제도로 보았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19-20)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토대로 진정한 신앙고백에 수반하는 세례를 진정한 세례로 보았고 이는 ‘진정한 회심’, ‘예배의 자격’, ‘교회의 구성원’ 등 다양한 부분의 교리와 신학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렇듯 성경을 가지고 타자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은 기존의 성경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 3. 아나뱃티스트 (재세례파)의 자신학화 방향과 결과 : 스튜어트 머레이 의 세가지 구분을 기초로

스튜어트 머레이 는 종교개혁의 현상과 결과를 앞에 두고 ‘Not Enough’를 외친 아나뱃티스트 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개혁의 목표와 기준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 1000 여년 넘게 유럽 기독교 를 지배하며 형성된 ‘Christendom Mindset’ 을 온전히 극복해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카톨릭 은 물론 불충분한 개혁에 안주한 것으로 바라본 종교 개혁자들조차 그들의 배타적 타자의 영역에 속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6세기 당시 사회제도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기독교적 전통에서 급진적 으로 돌아서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자들의 또한 당연한 평가이다.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지만 과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13년) 이후 국가종교 (State Religion)으로 성장한 것을 기독교의 승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타락 과정으로 볼 것인지 가 중요한 차이를 낳게 되었다.

Christendom 의 시대를 지나며 이 과정을 혹자는 국가종교 이후 수십년을 기독교 역사의 유 래없는 부흥의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교회성장 속도는 빨랐고 도처에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세워져 갔고 (Basilica) 사회적 법과 전통이 기독교 중심으로 변화 되었고 교회 리더들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급변 했고 기독교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고 국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 출신 청년들을 함께 선교 훈련하는 과정에 강사로 참여했을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부흥으로 볼 것인가?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중국의 삼자교회 출신 의 젊은 부부 훈련생은 당연히 부흥 이고 위대한 시기라고 답변한 반면에 베트남 지하 교회 구성원으 로 복음을 수용한지 3년 정도된 자매 청년은 이를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으로 단호하게 답변한 것을 기억한다. 양쪽이 가진 관점의 차이가 같은 사건에 다른 해석을 가지게 했다. 이후 각자가 추구하고 소망 할 기독교의 모습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나뱃티스트 들은 철저히 Christendom 시대를 기독교의 후퇴와 타락의 시기로 보았다. 이 를 향한 종교개혁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 목표는 이 시긴 이전의 기독교로 회복하

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아나뱃티스트의 비전’을 저술한 지도자 헤럴드 밴더(Harold S. Bender)는 종교개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믿음에 강조점을 둔 종교개혁은 훌륭한 것 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새로움 없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종교개혁에 대한 재세례신자들의 이러한 비판은 신랄했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추구 했던 원래의 목표가 만인을 위한 ‘진정한 기독교’를 되찾고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 이는 개신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그전의 가톨릭 시대보다도 못했기 때문이다.”<sup>5</sup>

스튜어트 머레이는 그의 책 ‘The Naked Anabaptist’에서 아나뱃티스트들이 ‘Christendom Mindset’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시도들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 그것은 The way we interpret the Bible (성경해석방식), The way we engage in Mission (선교 참여 방식) 그리고 The way we do Church (교회 목회 방식)이다. 이 구분을 따라서 그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타자와 환경에 반응하며 형성한 신앙체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 4. The way we interpret the Bible (성경해석 방식) 극복

사회의 주류가 아닌 주변이었던 기독교가 갑자기 로마제국의 중심이 되고 동시에 국가와 교회가 서로를 지지하며 상생관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진 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성경 말씀에 관한 접근으로 이어졌다. 성경은 변한 적이 없지만 주어진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관점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개 성경 해석의 갈림길은 Christendom 이라는 체제로 서로 깊이 연결된 국가와 교회가 동시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것이 전제가 된 성경 해석 방식을 내어놓았고 이는 신학이라는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보편화 되어 갔다. Christendom 시대 성경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sup>5</sup> 헤럴드 밴더 ‘아나뱃티스트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 비중은 줄고 종교적 영역에서의 적용과 묵상으로 제한되었다. 구약 성경이 더 적극 활용되고 신약성경의 내용은 점점 이상으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도 구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럽 전반에 강력한 Judeo Christianity 확산과 형성이 일어났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점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고위 성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루는 것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교회와 국가의 어떤 상태의 유지발전을 위한 설교와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각되고 인성은 간과되는 양상이 신앙고백과 신앙문답서 등에도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자도의 기본 이해를 심각한 축소와 왜곡을 나았고 산상수훈은 이상적이고 제한적 가치가 되어갔고 하나님 나라는 지상적 이며 제도적 가치가 되어 갔다.

일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 하시며 이제까지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중세 교회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종교적 영역에서 적용해야 하지 공적인 영역에는 실제적 이지 않다. 둘째, 하나의 교훈으로서 정신의 문제이지 실천의 문제가 아니다. 셋째,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넷째, 성직자와 수도사들 에게 국한된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온전하여 진 때에 이루실 말씀이다.

이러한 중세교회의 성경해석방식이 사회전반에 고착된 것으로 이해한 아나뱃티스트 들은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학문을 더하는 것보다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과 특정한 교육받은 성직자들의 해석의 무조건 적인 수용 보다는 성령에 의지한 공동체적인 해석의 중요성과 특별히 '제자도'의 회복을 매우 강조하게 되었다.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와 같이 되고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희석되고 왜곡되고 이상이 되어 버린 환경에서 진정한 제자도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논란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 5. The way we engage in Mission (선교참여 방식) 극복

Christendom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회심이 없는 개종이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회심은 제도화된 기독교 안에서는 ‘소속’이라는 의미로 바뀌면서 회심의 과정이 약화되었다. 기독교 제국의 확산에 힘썼던 콘스탄틴 과 그의 계승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교인의 수를 늘려 갔고 중세를 거치며 기독교국가와 이교도 국가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힘을 바탕으로 하고 우월성을 바탕으로 정복과 집단개종의 방식이 보편화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구약에 치우친 성경 해석의 영향과 국가와 종교의 공생 관계의 고착은 전쟁을 포함한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 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의 확장의 중심에는 세속적인 힘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Missio Dei 는 요한복음 17:18; 20:21 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이들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다. 4세기 이전 저술들에 Missio Dei 는 전해진 저술 곳곳에 등장 하는 표현이었다. 하지만 4세기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 말은 오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후 중세 카톨릭의 해외확장 주체로서 세워진 ‘예수회’ 의 로올라 가 다시 적극적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쓰여진 말은 하나님 이라는 의미의 ‘Dei’ 가 생략된 Missio 로써 단순히 교회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선별한 사람들을 보내어 확장을 위한 사업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했다. 16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Missio 라는 말은 종교적 목적만이 아닌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도 널리 쓰이며 오늘의 Mission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 확장 과정에서 저항하는 이슬람과 같은 이교도들과 야만민족들과 끊임 없는 충돌이 발생했고 자연스럽게 힘의 대결은 기독교 세력 확장에 있어서 실물적인 자원과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다. 당연히 전쟁도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평화와 화평함 도 힘의 우월성을 통한 통제와 통치라는 이해가 17세기까지 유럽을 지배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선교의 미명 아래 대결과 정복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어 십자군 운동과 제도적 교회 밖의 신앙 공동체를 대하는 잔혹한 방식은 지금은 재평가의 대상이지만 당대에는 모두 거룩한 행위로 주장되었다. 아나뱃티스트 가운데도 16세기로 국한 해도 유럽에서 2500 명 이상이 처형 당했다.<sup>6</sup>

<sup>6</sup> 이승갑, 16세기 종교개혁의 스캔들, 그 불관용의 역사에 대한 역사-재구성적 성찰 (2017)

신앙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형 당하고 수장되었다. 이후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선교는 식민지 지배적 선교에 영향을 주었고 개종 중심의 선교는 복음의 축소와 왜곡 그리고 세속적 선교의 확대를 초래 했고 오히려 중세 교회이 이러한 확장 방식은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고 성장에 오히려 기여한 측면이 있다.<sup>7</sup>

당연히 아나뱃티스트 들은 이와 같은 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특별히 폭력을 정당화해온 Christendom 의 방식이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를 추구했다. 또한 재세례 교리를 통해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지상 명령을 이해하여 세례를 베풀었고 단순한 개종이 아닌 진정한 회심을 추구하였다.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고자 한 제자도의 이해는 이후 경건 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이후 모라비안 운동의 근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수도원 운동의 재등장 또는 율법주의 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들은 세계 곳곳에 공동체를 세우고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 6. The way we do Church (교회 목회 방식) 극복

Christendom 시대 교회는 콘스탄틴 주의로 불려질 만큼 국가교회로 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이전까지 존재했던 초대교회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변해갔다. 콘스탄틴 주의의 교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가지 키워드는 대중성, 확장성 그리고 정치적 구심성 이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에게 친숙한 태양신 숭배 전통을 혼합하고 정치적 지원아래 빠르게 세속화 하는 길을 걸었다. 황제는 교회로 부터 신적 권위를 교회는 황제로 부터 제도적 안정을 제공 받았다. 그리고 이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기초로서 성경 해석과 그 존재목적으로서 선교 참여 이해에 따라서 그 모습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Christendom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나타나 이후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은 것들은 권력과 의 지속적인 이해관계 형성과 결탁, 속죄 중심의 기독교론, 성직자 중심의 위계 질서와 교회구조, 교회의 제도화, 복음의 교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속죄 중심의 기독교론 은 ‘회심의 변질’ 이라는

---

<sup>7</sup> 김기현, 탈콘스탄틴 주의로서 아나뱃티스트 1차 아나뱃티스트 신학 학술 발표회 (2016)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나왔다. 예수를 속죄를 위한 교리 안에 가둔 결과 교리적 완성도는 몰라도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흐려지는 결과를 나왔다.

회심의 의미로 중세교회가 선택한 단어는 라틴어 ‘파에니텐티아 (Paenitentia) ‘신의 은총으로 죄를 고백하다’ 의 의미이다. 처음 교회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다.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은총 (은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중세 교회를 거치며 강조점이 은혜에서 고백하다 로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후 고해성사와 같은 죄를 고백하는 행위 자체로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지금도 기독교 안에 편만하게 퍼져있는 이해이기도 하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 μετάνοια 인데 그 의미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 이다. 이전 시대 아람어 (타브)와 히브리어 (슈브)에서 회개는 더 의미가 깊어서 오늘날 언어로 풀어보면 해 ‘신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처음 인간의 깊은 곳에 심은 신의 DNA 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이다. 고백을 통한 죄의 해결이 얼마나 성경 본연의 의미에서 멀어진 것인지 알 수 있고 이는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명목상 기독교인을 양상 하는 재앙을 초래 하게 된다.

아나뱃티스트 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늘 강조해 왔다. 이는 성경적 근거 이전에 타자에 대한 배타적 수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이 더 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카톨릭의 타락은 국가 종교이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종교개혁이 불충분 했던 이유는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나뱃티스트 들에게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이들이 믿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일치된 마음으로 한 하나님, 한 주님, 그리고 한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한, 교회는 이런 신앙고백의 토대 위에 세례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고백을 전제하지 않은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신자들이 철저하게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세례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아 세례와 특정 신앙(혹은 교회) 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국가교회체제도 용납할 수 없었다.<sup>8</sup> 그래서 아나뱃티스트들은 “거룩한 존재들의 교회”를 추구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는 영과 진리에 속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거룩한 신자들 로 구성되며, 그런 거룩함은 신자들의 개인적·공동체적 삶을 통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신념에 따

---

<sup>8</sup> 배덕만, 아나뱃티즘과 한국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KAC 20주년 기념 논문 (2021)

라, 이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온전하고 순결한 교리 둘째, 성례의 성경적 사용 셋째 말씀에 순종 넷째 진실 되고 형제 같은 사랑 다섯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용감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억압과 환란이다.

이처럼, 이들은 교회에 대해 높은 영적·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출교를 포함한 엄격한 처리를 통해 자신들의 이상적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하려 했다. 가톨릭과 개혁자들 모두 교회 내에서 죄인과 의인의 공존을 인정하며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그런 신학과 관행이 아나뱃티스트들에게는 신학적 궤변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러므로 불의한 사람과 죄인들, 창녀와 간음자, 싸움꾼, 술주정뱅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sup>9</sup>

## 7. 정리하며

아나뱃티스트가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대 아나뱃티스트들의 후예들도 수 많은 변질과 타락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늘 그렇듯 급진적 운동이 초래하는 모순과 지나친 배타성등 아나뱃티스트 운동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중심으로 문턱을 넘어선 개혁자의 개혁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가야할 길을 발견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학화’라는 원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 보았다. 성경, 타자, 환경이라는 동력이 시대를 넘어서는 구별된 신학과 실천의 체계를 제공했다는 점은 여전히 Christendom Mindset으로 가득한 한국 교회 현실에 ‘자신학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한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가기 원하셨던 니느웨가 아닌 자신이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맞고 선원들이 그가 누구인지 질문했을 때 멋지게 답변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를 늘 예배하는 자입니다.’ (욘1:9) 그의 답변은 멋지고 성경적이었지만 그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있습니다. 수 많은 멋진 고백이 쏟아지는 현대 교회

---

<sup>9</sup> Walter Klassen, ed., Anabaptism in Outline, 116.

에서 아나뱃티스트 들이 남긴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은 그 후예들이 소환하기에 애쓴 초대교인들의 모습과 함께 우리를 성찰하고 재발견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은 즉 유력하고 편리하고 대중적인 길이 아니라 좁고 험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즉 모두가 가지 않는 길로 가야만 멸망이 아닌 생명이 이르게 된다고 하셨다. 시대마다 대중은 평온을 깨는 급진주의자 들을 늘 경계하고 방해했지만 어쩌면 예수의 제자들은 문턱 아래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보단 기대와 염려를 한 몸에 받으며 끊임없이 문턱 너머 세상으로 향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운명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신학은 턱을 높이고 견고하게 지켜내며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턱을 넘어서 서로 경청하며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찰하는 가운데 더 견고해져 간다고 믿는다. The Radical Disciple 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현대 복음주의 진정한 리더인 존 스토틀가 평생 실천한 것은 Double Listening 이었다고 한다.<sup>10</sup> 그것은 Listen from Word, Listen from World 였다. 신학적으로 완전하다는 착각으로 신학의 박스 안에 갇히기 보다 시대마나 말씀에서 듣고 세상에서 들으며 끊임없이 순례하며 대화하며 그래도 생애 문턱을 넘어보는 경험을 하는 진정한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이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여전히 소망해 본다. 아나뱃티스트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을 옮겨 적으며 글을 마치려고 한다.

“ No one can know Christ unless he follows after him.

And no one can follow him unless he first know him.”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먼저 알지 못한다면 그 분을 따른다고도 말할 수 없다.”

**Hans Denck**

---

<sup>10</sup> 존 스토틀 제자도 IVP (2010)

## 참고 문헌

- 스투어트 머레이,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대장간 (2011)
- 스투어트 머레이, 아나뱃티스트 성서해석한 대장간 (2013)
- 알란 클라이더, 회심의 변질 대장간 (2012)
- 김요섭, 재건설 과 개혁: 재세례파 논반 에 나타난 칼빈의 종교개혁 이해 한국개혁신학 56호 (2017)
- 박찬호, 츠빙글리 와 재세례파의 관계 조직신학연구 40호 (2022)
- 김기현, 탈콘스탄틴 주의로서 의 아나뱃티스트 (2016)
- 최형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한 모색으로서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관한 고찰 (2013)
- 배덕만, 아나뱃티즘 과 한국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21)
- 이승갑, 종교개혁의 스캔들, 그 불관용 의 역사에 대한 역사-재구성적 성찰 신학과 사회 36호 (2022)
- 박종균, 재세례파 종교개혁의 성서해석적 함의 신학과 사회 34 (2020)
- 정미현, 츠빙글리와 재세례파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와 그 현대적 적용 한국 조직신학 논총 62 집 (2019)
- Stuart Murray, Christendom and Post-Christendom (2010)
- Walter Klassen.ed., Anabaptism in Outline
- Alan and Eleanor Kreider, Anabaptist Dramatic Readings (2011)